

청·장년 성경공부

요한복음: 어둠을 이긴 빛

제 2 부

빛이 이기다 (요한복음 13~21장)

<인도자 지침서>

글쓴이 : 알렌 리즌 (Allen Reasons)

데이 메이 (David May)

데이 화이트 (David White)

게리 롱 (Gary Long)

프랜스 브라운 (France Brown)

로니 메리어트 (Ronny Marriott)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요한복음 : 어둠을 이긴 빛, 제2부 - 빛이 이기다 (요 13 -21장)

저작권 © : 2011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성경
, 1961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 LeadershipTeam

Director, Education/Discipleship Center: Chris Liebrum

Director, Bible Study/Discipleship Team: PhilMiller

Publisher, BAPTISTWAY PRESS®: Ross West

한국어 집필위원

요한복음 2부: 빛이 이기다, 인도자 지침서 1과 ~ 5과, 10, 11과) 번역
Saenuri Baptist Church

요한복음 2부: 빛이 이기다, 인도자 지침서 (6과 ~ 7과) 번역
유윤수 (뉴송교회)

요한복음 2부: 빛이 이기다, 인도자 지침서 (8과 ~ 9과) 번역
김훈희 (First Baptist Church of Houston)

요한복음 2부: 빛이 이기다, 인도자 지침서 (1과 ~ 11과) 편집
Saenuri Baptist Church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11년 5월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알렌 리즌 (Allen Reasons): 인도자 지침서 1과에서 5과의 "성경 주해" 를 저술했다. 웨스트 버지니아, 헌팅톤의 Fifth Avenue Baptist Church 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 그는 또한 Palmer Theological Seminary 의 부교수이다. 그는 이전에 텍사스와 미취리에 있는 교회들에서 목사로 시무했다. 리즌 박사는 싸우쓰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Ph. D 를 받았다. 그와 그의 아내 로리는 두 명의 자녀 Katherine 과 Preston 을 두고 있다.

데이빌 메이 (David May): 성인도자 지침서 6과에서 11과까지의 "성경 주해"를 저술했다. 메이 박사는 캔사스 Shawnee 에 있는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신약학 교수이다. 그는 또한 미드웨스트에 있는 침례교 모임에서 자주 초청되는 강사이다. 그는 1세기 세상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관련된 수필과 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그는 침례교 일간지인 Review & Expositor 의 이사회원이다. 그는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Ph. D 를 받았다.

데이빌 화이트 (David White): 인도자 지침서 1과에서 3과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 을 썼다. 화이트 박사는 텍사스 마살에 거주하며 1983년 이후 East Texas Baptist University 에서 구약학, 신약학,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쳐 오고 있다. 오클라호마 출신인 그는 텍사스 포트워쓰에 있는 싸우쓰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얻었다.

게리 롱 (Gary Long): 인도자 지침서 4과에서 5과까지 "교사를 위한 제안들"과 학습공과 4과에서 5과를 썼다. 게리는 메릴랜드 Gaithersburg 의 제일침례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는 이전에 텍사스 휴스턴의 Willow Meadows Baptist Church 를 섬겼다. 또한 그는 북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섬겼다.

프랜스 브라운 (France Brown): 인도자 지침서 6과, 7과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 저자이다. 휴스턴에 있는 College of Biblical Studies 에서 부학장 및 교수로 섬기고 있다. 그곳에서 그는 성경해석학, 성서적 교수, 그리고 강해설교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국내와 국외를 여행하며 가르치고 설교한다. 그는 설교 목사로서, 기독교 교육 목사로서, 그리고 전도 사역자로서 봉사해왔다. 프랜스는 휴스턴의 New Providence Baptist Church 에서 기독교 교육 사역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로니 메리어트 (Romny Marriott): "인도자 지침서 8과에서 11과까지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을 썼다. 텍사스의 코퍼스 크리스티 제일침례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싸우쓰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메리어트 박사는 BaptistWay Press 에서 청소년 성경공부 교재를 저술했고 있으며 이것은 그의 세 번째 "교사를 위한 제안들" 이다.

요한복음: 어둠을 이긴 빛

2부 - 빛이 이기다 (요한복음 13장~21장)

인도자 지침서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인도자 지침서의 저자들

단원 1 예수님의 몇 가지 말씀들

학습 일자

1과	_____	인간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접근.....6 요 13:1-17
2과	_____	예수 - 진실로 유일한 길12 요 13:31-14:14
3과	_____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18 요 14:15-18, 25-27; 15:26—16:15
4과	_____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25 요 15:1-17
5과	_____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 당신도 포함해서.....31 요한복음 17

단원 2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6과	_____	예수님에 대한 판결.....37 요한복음 18:15-27; 18:33-19:16
7과	_____	생명을 주기 위한 죽으심.....45 요한복음 19:16b-30, 38-42
8과	_____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52 요한복음 20장1절-18절
9과	_____	예수님의 사역에 보냄을 받음.....58 요한복음 20장19절-23절

10과	_____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함.....64 요한복음 20: 24-31
11과	_____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70 요한복음 21장 1-23절

<p>[제 1 과]</p>	<p>인간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접근</p>
<p>핵심본문 요 13:1-17</p> <p>배경 요 13:1-30</p>	<p>학습주제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본은 지위와 섬김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뒤집어 놓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도록 도전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어떤 식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종으로서 행동하는가?</p> <p>학습목표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약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방법들을 생각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요한복음 제 2 부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었던 다락방에서 시작한다. 요한은 먼저 1--12장에서 예수님의 표적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곳에서 빛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걸쳐서 두드러지게 빛난다. 요한복음의 남은 장들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좀더 개인적인 사역으로 전환했다. 이 부분에서부터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기로 헌신했던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몇 가지 말씀들을 전했다.

복음서의 후반부 (13--21장)를 '빛이 이기다'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 하나님의 빛은 3년 동안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 비취었다. 다음으로, 어둠은 보자기처럼 세상을 덮으려고 할 것이다. 그 빛은 최후에는 확실하게 어둠을 정복할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그 어둠의 장막은 지속될 것이다.

이번 과에서 요한은 주님께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충격적인 장면을 제공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기를 기대했던 한 가지 본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 더욱 놀랍게 될 밤에 대한 얼마나 이상한 시작인가!

그날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밤이었다. 그 말씀들을 듣고 행동들을 주목하라; 그 빛은 어둠을 이기고 있었다.

본문 해석

저녁식사 배경 (13:1-3)

요한은 "때가 이르렀다"는 선언으로 작별 담화를 도입했다 (요 13:1). 종종 '시간'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일정한 순간을 나타내는 "때"로 번역되었다. 다른 곳에서 인용된 것들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환하는 것을 시작하는 시기이고 그의 제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책임들을 떠받들도록 격려하는 시기이다.

이는 또한 유월절의 시기였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 (1:29)으로 파악한 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서 그리는 것을 통해 그 비유를 계속했다. 유월절 양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 한 날 밤 잡아서 먹었던 양을 기억하기 유월절 절기 동안에 잡혔던 양이다.

실재 시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가 죽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 시간이 가고 올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고 있는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발을 씻어주는 머슴 일을 감당한 것은 그 방의 어두운 공기 속에 잠복한 이기적인 악마와 비교된 이타적은 사랑을 드러냈다 (13:2, 18, 21, 26-30).

공관 복음서들은 이 저녁 식사가 유월절에 있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마태복음 26:19; 마가복음 14:16; 누가복음 22:13). 하지만 요한은 예수께서 유월절 전, 준비 일에 (13:29; 19:31)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 경우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결정적인 결과 없이 제시되어 왔다. 아마도 4개의 복음서들의 시간을 모순 없이 일치시켜 주는 가장 도움이 되는 이론은 준비 일에 대한 요한의 설명이다. 준비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룩한 때인 유월절 주간의 특별한 안식일을 위한 준비일을 나타낸다. 그 안식일은 유월절 기간에 기념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나타낸다. 반대로 공관복음서는 유월절 자체의 준비일로 설명한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그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계셨다; 그것은 유월절 시즌 동안에 정확하게 왔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실재

음식 자체 대신에 그 음식을 둘러싼 배경에 요한이 초점을 맞춘 것은 독자로 하여금 고난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요청한다.

요한은 독자에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알려준다. 유다가 악한 생각으로 행동하는 순간이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다 (13:18-19, 21-30).

모범 (13:4-11)

13:4-5. 이 저녁이 유월절 만찬이었는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이 저녁은 유월절 만찬 보다 하루 전에 행해진 것으로 되어있다. 유월절 잔치가 금요일이라면 지금은 목요일 저녁이 되는 것이다. 공관복음의 유월절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소개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식사 준비를 하게 하신다(눅22:7-14, 마26:17-20, 막 14:12-17). 이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은(태양력과 태음력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성전의 시간 규정과 쿰란 공동체(the Qumran Community)의 시간 개념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배교자 예수께 유월절을 허락하지 않아 다른 시간에 유월절을 치렀기 때문이다. 공관 복음의 기자들이 유월절로 연결한 것이다.)

이 저녁은 유월절 하루 전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로 보이며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이 저녁의 의미를 유월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날짜 설정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마귀가 이미 가룟유다에게 들어갔지만 이것은 마귀의 주도에 의해서 끌려 다니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4절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일을 어설프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tivqhmi(티데미) "벗다, 목숨을 버리다, 내려앉다"의 의미가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짓게 표현하고 있다.

5절 팔레스타인지방에는 날씨가 건조하여 흙먼지가 많고 사람들은 샌달류의 신발을 주로 신거나 맨발로 다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는 더럽혀진 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다. 부자 집인 경우 주인이 종에게 일러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도 있으나 대부분은 자신이 씻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종들이 할 일을 그것도 서슴지 않고 확실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눅22:24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분쟁이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언의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기도 하셨다.

13:6-11. 분위기는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베드로의 직접적인 질문에 의해서 깨어지고 있다. 서열이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7절 '알다'에 해당하는 원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나온 것은 oiWda"(오이다스)는 일반적으로 "안다, 깨달다"이고 뒤에 나오는 gnwsh/(그노세)는 참된 이해를 말하는 "이해하다, 확신하다"의 뜻이다.

8-9절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의 부인은 0uj mh;(우 메) 두번의 부정접속사로 완강함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했을 때도 그리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한 적이 있다(마16:22).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들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여 한 말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할 뻔한 일이었다.

자신이 이해가 잘 안될 때는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목적이 있겠지 하고 인내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태도가 돌변하여 내 발 뿐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의 급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며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있을 유익만을 생각한 급한 대답이었다.

10-11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보통 잔치 집이나 초대받아 남의 집에 갈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가는 것이 예의이다. 그리고 가서는 가는 도중 더럽혀진 발만 닦으면 된다. 이런 일상적 일을 영적인 면에 적용시켜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 동락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능력과 권세도 체험하기도 했다(눅 9:1-9).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다(마16:16). 이런 제자들은 목욕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가룟유다를 가리킨 말씀이다(참고. 요13:11, 18).

설명 (13:12-17)

13:12.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삼고자 질문을 던지신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분명 제자들로 하여금 kuvrio"(퀴리오스) "주"라고 부름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종이 되셔서 섬긴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이신 것이다.

13:16-17.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섬김의 예는 높은 자가 따로 없으나 그 질서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언급하신다. 예수 자신이 보내주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되실 수 없다. 그것처럼 제자들이 또한 예수보다 큰 자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행한다면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요한 복음의 전체적인 주제 "빛이 어둠을 이기다" 를 칠판에 써라. 학습공과에서 "요한복음 소개: 빛이 어둠을 이기다" 로부터 요한복음의 개요를 요약하라.
2. 학습 제목, 학습 주제, 탐구 질문, 그리고 학습 목표를 읽어라.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모범을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라.

학습 연구

3. 요한복음 13:1-3절을 읽어라. 질문하라.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것을 알았을까?

- *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다.
- * 예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기로 선택하셨다.
- *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완전한 유월절의 희생 양이셨다.
- * 이 역사적 사건의 시간표는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짜여졌다.
- * 예수께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선동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4. 13:4-15절을 읽어라. 발을 씻기는 것은 중동지역의 흙 길을 샌달을 신고 여행을 한 사람들이 방에 들어 왔을 때 사람들이 발을 씻고 편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라. 보통

집에서는 종을 두어서 이런 낮은 일을 하도록 시켰다. 하지만, 이 밤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당받은 사람이 없었다.

5. 질문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동기는 무엇인가? (요 13:1b를 보라.) 질문하라, 예수께서는 발을 씻는 것을 예배 의식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반원들의 대답을 들어라, 그리고 학습공과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13:6-15) 라는 구절로부터 도움이 될 듯한 정보를 나누라.

6. 반원 중 한 사람이 누가복음 22:24절을 읽게 하라. 질문하라, 당신은 예수께서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와 유다의 발을 씻기시지 않을 요양이셨다고 생각하는가?

7. 요한복음 13:16-17절을 읽게 하라. 질문하라:

- * 왜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 되시는가?
- * 21세기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가?
- *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면 어떤 종류의 복을 받게 될까?

적용 격려

8. 학습공과에 나오는 "사례 연구"를 읽고 요약하라. 질문하라, 이 사례 연구에서 당신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할 것인가? 당신은 해야 할 옳은 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9. 섬기는 일은 발을 씻기는 것 자체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 자부심, 명예, 그리고 권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이웃의 발 앞에서 뒤집어 놓는 어떤 다른 행동을 의미한다. 학습 공과 시작 부분에 나오는 수건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라. 질문하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수건을 두를"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지위, 자부심, 명예, 그리고 권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이웃의 발 앞에서 뒤집어 놓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이것을 했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보일까?

10. 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위해 남겨 주신 본을 따르며 살아가는 일에 헌신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p>[제 2 과]</p>	<p>예수 - 진실로 유일한 길</p>
<p>핵심본문 요 13:31-14:14</p> <p>배경 요 13:31-14:14</p>	<p>학습주제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는 길로서 자신을 제시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를 믿고 섬기도록 했다.</p> <p>탐구질문 아버지께 가는 길로 자신을 제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p> <p>학습목표 베드로, 도마, 그리고 빌립과 하신 예수님의 대화의 의미를 요약하고 오늘날 제자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하도록 격려하는지 묘사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밤은 그의 작별 강연을 시작함으로써 계속되었다.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요 13:4-17),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그가 제자들에게 하셨던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비록 발을 씻는 것은 1세기에 통상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은 것은 특이한 일이었다.

예수께서 다시 그의 식사 자리로 돌아 왔을 때, 그는 유다에게 빵을 건넌으로써 누가 그의 배신자가 될 것인지를 확인했다.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다에게 빵을 건네는 것은 가슴이 사무치고 비범한 일이었다. 예수께서 유다를 섬겼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들의 눈이 마주쳤던 순간의 무게를 그려보라. 빵을 받자, 유다는 " 곧 나가니 밤이었다" (13:30).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서 묘사했었다 (1:9), 하지만 유다는 그를 떠나기로 선택했고 밤 속으로 나갔

다. 오늘 수업의 제목 "빛이 어둠을 이기다" 이 나타내는 것처럼, 빛과 어둠 사이의 그 나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한복음의 이미지이다. 그 그림은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잃지 않는다; 그 배신자는 어둠을 쫓아 나갔다, 반면 신실한 제자들은 그 빛과 함께 머물렀다.

비록 예수께서 이전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었지만 (요 12:23; 마 16:21), 다락방에서 이 말씀들의 음색은 즉각적이고 불길한 것이었다. 이 때의 그의 말씀들은 지도자가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뜻이었다, 이는 열 두 제자들이 모두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본문해석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는 때를 선포하시다 (13:31-35)

13:31-32. 두 절에 걸쳐 영광 doxavzw(독사조)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한다. 유다는 예수를 팔러 산헤드린공의회로 갔지만 예수께서는 이제 그가 함께 하고 있었던 때의 긴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임박한 십자가의 지심이지만 그 고통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13:33. ‘소자들아’ tekniva(테크니아)는 부모들이 자녀를 정답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로 "애들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번 이곳에서 사용하셨지만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7번(요일2:1, 12, 28, 3:7, 18, 4:4, 5:21)을 사용함으로써 이 말을 좋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3:34-35. 배반자 가룟유다가 빠진 자리에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부여해 주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19:18의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과 뜻이 같지만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민족적인 범주와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지만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실천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35절 예수 제자됨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사랑'이 ajgavph(아가페)로 사용되어 하나님 안에서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것을 말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시다 (13:36-38)

13:36. 베드로가 예수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기사이다. 이 내용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다(마26:33-35, 막14:29-31, 눅22:31-34).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언제나 수제자로 자청하고 예수의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함께 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지는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후에 소설 <퀴바디스>에서 기록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

13:37-38.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의 베드로의 고백은 일단은 허구가 되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지만 결국은 그의 이 고백은 이루어진 것이 되었다.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경악스러운 내용으로 들렸을 것임이 틀림없다. 제자들은 아마 베드로가 배반자라고 충분히 생각할만한 대화였기 때문이다(참고. 요13:21-25).

예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다 (14:1-14)

14:1.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다(요7:34, 요12:8, 35, 요13:33), 죽으신다(요12:32-33)는 말씀과 제자 중 하나는 배반한다(요13:21), '베드로는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요13:38)는 말씀은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갈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주신다. 근심하다 tarassevsqw(타라세스도)는 같은 용어가 나오는 요11:33, 요13:21, 요14:27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민망하여"로 번역되었다. 이 용어는 "마음이 요동치다"로 이해할 수 있다. 믿으라 pisteuw(피스투오) "믿다, 위탁하다, 맡기다"로 원문상 명령문이나 평서문으로 번역해도 모두 문제가 없지만 말씀의 요지로 보아 서술적 선언이 아닌 명령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더 낫으리라 본다.

14:2-4. 히3:2에는 "하나님의 온 집"이란 표현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가깝게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하신다. 거할 곳 ...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 monai;(모나이) "거쳐, 있을 곳"은 세상의 집을 떠나 하나님 집에서 안식처를 뜻한다. 예비하러의 eJtoimavzw(헤토이마시아)는 "준비하다"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과 믿는 자의 안식처를 준비하러 가시는 것이다.

3절 내가 다시 와서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고(참고. 요17:24), 잠시 제자들의 곁은 떠나지만 부활 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절 너희가 알리라의 oi[date(오이다테)의 어근 단어 ei[dw(에이도)는 완료형이지만 현재적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형은 아니기 때문에 "알리라"의 번역보다는 [너희가 알고 있다]로 번역하는 것이 오해가 없다

14:5-7. 5절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마가 말했지만 "우리가"로 말함으로 다른 제자들도 포함하여 함께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말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심정은 사도행전2장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6절 이해할 수 없는 도마의 질문에 대답한 말씀으로 !Egww eijmi(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형식으로 대답하셨는데 이러한 용법은 요한이 일곱 개(요6:48, 요8:12, 요10:9, 11, 요11:25, 요14:6, 요15:1)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가 된다(참고. 요15:1). 예수께서 "길"이 되시는 것은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다

7절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보충설명으로 질책성이 내포되어 있다.

14:8-14.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나 도마에 이어서 빌립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도마와 같이 "우리에게"라고 함으로 다른 제자들 역시 똑같은 입장임을 대변하고 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참고. 출33:18)는 인류의 보편적인 욕망을 표현했다. 하지만 자칫 이러한 발상은 우상숭배로 발전하는 것이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도전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9절 하나님이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10절 성부와 성자간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언제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분이 일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분이 하시기에 당연히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12절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신들만 남겨진다면 하는 생각에서 극도로 불안했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말씀을 주신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날 기적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때 그런 일보다도 더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넣어주신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각 지방에서 온 3000명을 회개시킨 일 등을 들 수 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시인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과 말씀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찬송가 "누가 주를 따라" 처음 2개 가사를 읽거나 노래를 부르라. 인도자가 직접 해도 좋고 반원들이 함께 해도 좋다.
2. 오늘 수업의 제목은 "예수 - 진실로 유일한 길" 이라는 것을 주목하라. 반원 중 한 사람이 학습공과에 나오는 학습 주제, 탐구 질문, 그리고 학습 목표를 읽게 하라.

학습 인도

3. 반원 중 한 사람이 13:31-35절을 읽게 하라. 학습공과 '참고' 부분의 "예수님의 영화" 부분을 요약하라. 이 내용의 사상에 근거해서 이 질문을 하라: 예수님의 영화는 그의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다고 생각하는가? 반원 중 한 사람이 빌립보서 2:6-11절을 읽게 하라.
4. "사랑"에 대한 헬라어는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하라.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라는 것을 진술하라.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원수나 친구 모두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개념을 내포한다. 반원들이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타인의 사랑의 예들을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5. 반원 중 한 사람이 13:36-14:4절을 읽게 하라. 질문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 13:38)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구절들을 학습공과와 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부분의 내용을 참조해서 설명하라.
6. 반원 중 한 사람이 요 14:5-10절을 읽게 하라. 이 구절들을 학습공과와 이 인도자 지침서의 내용을 참조해서 설명하라 (14:6-10).
7. 요한복음 14:11-14절을 읽어라. 이 구절에 대해 학습공과에 나오는 내용을 참조해서 설명하라. 질문하라,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당신은 예수께서 어느 것이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예수께서 피곤을 느끼셨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예수께서 갈증이나 배고픔을 느낀 적이 계셨다고 생각하는가?

적용 격려

8. 질문하라, 베드로, 도마, 그리고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격려를 해주는가? 반원들이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 하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한 다 말할 수 있도록 하라.

9. 처음에 불렀던 "누가 주를 따라"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다 함께 부르도록 하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그분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위해 기도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요 14:15-18, 25-27; 15:26-16:15</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요 14:15-16:15</p>	<p>학습주제 성령을 보내심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역과 함께 하심을 제공한 것이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성령의 사역을 묘사하고 성령의 사역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사역하는데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는 길을 파악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가 떠나가신 뒤 그들을 데리러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증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안위하시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격려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 수 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며 지냈지만 그 무리는 여전히 신적인 계획에 대한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놀라울정도로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계획의 미래에 그들의 중심적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다른 분에게 그의 관심을 돌렸다, 그의 함께 하심은 제자들을 안위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계속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는 그 기다림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확인시켜주심으로써 그들을 격려했

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을 앞장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 목적은 계획하신 대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러가지 갈등과 고난을 통해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 제자들은 3년 전에 동참했던 이 사역이 성령께서 오셔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도감을 느꼈을까?

본문 해석

약속 (14:15-18)

14:15-17. 15절의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기 전에 이미 일러둔 '새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다(요13:34, 35).

16절에 나오는 보혜사(保惠師) paravklhto"(파라클레토스)는 parav(파라) "곁에"와 klhto"(클레토스) "부름 받은"의 합성어로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 받은 자"란 뜻이다. 영어성경 KJV는 comforter(위로자), NIV, RSV는 counselor(상담자), 다른 성경들은 helper(돕는 자)로 옮겼다. 한글성경 현대인의성경에서는 "보호자"로 번역했다.

원문의 단어는 신약성경 중에 한군데 더 나타나는데 역시 요한이 사용한 것으로 요일2:1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옮긴 "대언자"가 이 용어이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성경에서는 "변호자"로 번역했다.

17절 pneu'ma(프뉴마:영) ajlhqeiva"(알레데이아스:진리) 가운데 있는 th"(관사)의 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격의 의미로 볼 때는 "진리이신 영"으로, 소유격일 경우 "진리의 속성을 가진 영", 목적격으로 볼 때는 "진리를 전달하는 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의 경우 다른 곳에서도 "성령"이 주격의 의미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음 두 개의 경우는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 이러한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통신하는 유일한 창구가 되는 것이다. 전파는 분명히 있지만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과 교통하는 단 한가지 방법인 것이다.

14:18.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일차적으로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씀이고 두 번 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볼 수 있다(마24:27, 36, 눅12:40, 살전5:2, 계16:15).

성령의 사역 (14:25-27; 15:26—16:15)

14:25-27. 보혜사는 성령의 성격적인 표현으로 말씀되어진 것으로 독 성령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말씀이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때는 당시의 제자들만큼이나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신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요2:22, 요7:39, 요20:9).

27절의 "평안" eijrhvnh(에이레네)는 히브리어 !lv;(shalom)의 번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로 사용되었다(창29:6, 37:14, 43:23, 레26:6, 민6:26, 삿6:24, 삼상16:5, 왕하4:26).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빌4:7),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롬5:1)을 주셨다. 이 평안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실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마10:12)고 하신 적이 있다. 바울은 엡2:17에서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라고 전했다.

15:26-27. 26절의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는 요한에 의해서만 기록되었는데 한글개역성경에 "보혜사"로 번역된 것은 모두 요한복음에 4번 나온다(요14:16, 26, 요15:26, 요16:7). 그리고 원어로 같은 단어가 요일2:1에 "대언자"로 한번 더 나타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며(계19:10:대언의 영) 그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요14:17, 15:26).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는 직설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명령법 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대인의성경에서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증거해야 한다."로 번역했다. 이보다 더 강하게 영어의 리빙바이블(Living Bible)은 "And you also must tell..." '너희는 증거하라'는 의미로 번역했다. 원문의 "kai; uJmei" de; marturei'te" kai(카이) 접속사

"그러므로, 역시"와 de(데) "역시, 또한"이 사용된 것은 [너희도 역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다(마28:18-20, 행1:8).

16:1-4. 4절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는 예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다(요2:22, 요13:19, 요16:1). 제자들은 지금은 당혹하기만 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가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중요한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16:5-11. 예수께서는 가시는 목적지가 있었다. 자신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것이다. 오히려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마8:20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다.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는 요13:36 베드로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와 요14:5 도마의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과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원문의 "묻다" ejrwta(w(에로타오)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과거가 아닌 지금 묻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자신들의 문제에만 집착하여 예수님의 가시는 길(십자가, 죄사함,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있기에 유익한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한 영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신'과는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8절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인 "책망" ejlevgxei(엘렝크세이) "훈계, 꾸짖다, 죄를 깨닫게 하다"에 대해서 언급하신다. 이 단어는 미래형으로 앞으로 역사 하실 성령을 말한다(행2장 이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회개를 도우며 잘못된 생각들을 늘 바로 잡아 주신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 aJmartiva(하말티아) "과녁을 못 맞추는 것" 빛나간 화살을 뜻하는 용어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잘못된 생각을 말한다(요15:22). 세상에서의 죄란 사람의 실수, 악덕, 만행을 죄로 생각하지만 제일 큰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롬1:18, 21, 25, 28).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 dikaiosuvnh(디카이오쉬네) "공정, 정의"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9절과 연결되어보면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는 것이다.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3-4장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다.

16:12-15. 12절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이해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지금은"이라는 단어가 있어 조만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신다.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경에서 "진리"란 오직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 내거나 사람 어떤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만이 진리라는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다" oJdhgevw(호데게오) "길을 보여주다, 이끌다, 안내하다"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진리중의 진리로 이끄신다.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hj;n:(나하)를 70인역(LXX) 옮긴 것으로 시편에서 많이 나타난다(시5:8, 18:19, 23:2, 3, 27:11, 31:3, 42:4, 60:9, 73:24, 78:14, 16, 52, 80:1, 81:10, 105:37, 107:7, 14, 28, 30, 136:11, 12, 16, 143:10 등). 대부분의 시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칠판에 학습공과에 있는 다음 줄거리를 스고 수업을 진행할 때 가리키면서 참조하라.

성령-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

- ㄱ. 격려하는 함께 하심 (14:15-18)
- ㄴ. 인도하는 함께 하심 (14:25-27; 16:13-15)
- ㄷ. 확신을 주는 함께 하심 (15:26--16:15)

2. 학습공과에서 수업 제목을 읽고, 반원 중 한 사람이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그리고 탐구 질문을 읽게 하라.

3. 오늘 수업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가 몸으로 같이 있지 않음에도 그의 사역이 어떻게 계속 되어야 하는지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사역,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 격려 받고 강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진술하라.

학습인도

4. 반원 중 한 사람이 요한복음 14:15-18절을 읽게 하라. 단어 '성령'에 대한 헬러어는 영어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라. 성경 번역가들은 이 단어를 "변호인 (Advocate)," "돕는자 (Helper)," "상담자 (Counselor)," 그리고 "안위자 (Comforter)"로 번역했다.

5. 질문하라, 당신은 "변호인 (Advocate)," "돕는자 (Helper)," "상담자 (Counselor)," 그리고 "안위자 (Comforter)" 인 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어떤 식으로 경험했는가?

반원들이 대답을 마친 후, 다음 실재 이야기를 나누라. 마이크는 지금 이 "교사를 위한 제안들"을 쓰고 있는 저자의 교회 멤버이다. 그들은 함께 1-6학년때까지 소년들을 위한 교회의 선교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인 "Royal Ambassadors" 에서 일했다. 어느날 마이크는 침례교 주간물인 "The Baptist Standard" 에 있는 한 기사를 읽었다. 푸에르토 리코에서 허리케인이 지나간후 복구를 위한 자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마이크가 그것을 표현 한 바에 따르면 마치 글자들이 그 페이지에서 자기 앞으로 튀어 나온 것 같았고 그를 이 프로젝트의 자원 봉사에 참여하도록 강력하게 이끈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성령은 항상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지는 않지만 이 경우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마이크는 자신이 이 프로젝트에 자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언급하라.

6. 반원 중 한 사람이 요 14:25-27; 16:13-15을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그 구절이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주목하도록 하라. 말씀을 다 읽은 후 반원들의 대답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라. 성령의 이러한 사역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 같다.

7. 반원 중 한 사람이 15:26-16:15절을 읽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다른 가르침들에 주목하게 하라. 대답을 듣고 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 시키신 것처럼 우리는 은혜롭게도 활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가르키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신다. 예수께서는 성령은 특히 박해의 시기에 보호자, 돕는자, 상담자, 그리고 위로자로서 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일하신다. 학습공과에 나오는 "확신을 주는 함께 하심 (15:26--16:15)" 의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하다면 이 구절에 대한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활용하라.

적용 격려

8. 학습공과에 나오는 "사례 연구" 를 읽고 참조하라. 당신은 이 마음이 아픈 아버지와 함께 어떤 영적인 진리를 나눌 수 있겠는가?

9.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통해 성기도록 부르신다. 포스터 종이 나 칠판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라는 제목을 써라. 반원들이 그들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도록 하라. 반원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제시할 때 그것들을 칠판에 기록하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도록 반원들을 격려하라.

[제 4 과]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요 15:1-17</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요 15:1-25</p>	<p>학습주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에게 활력있게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께 완전히 순종함을 통해 그 관계를 드러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다.</p> <p>탐구질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있는가?</p> <p>학습목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관련 되는지 설명하고 제자로서 요구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는지 생각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성령의 강림을 선언하시는 와중에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셨다. 그러한 생산성은 오직 주님과와의 관계 속에 거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돌아오실 것을 확신시켜 주심으로써 그의 제자들을 안위하셨다. 그는 다시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함께 하심을 제공하실 것이다.

이 본문의 부분에서 (요 15:1-17) 짧은 순간 동안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으로부터 거하는 것으로 대화의 초점을 바꾸셨다. 제자들은 사역에서 그들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연결된 상태

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 문맥은 청중들에게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상기 시켰다. 비록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도록 떠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이 신자와 예수 사이의 영원한 관계가 있음을 알기를 원했다.

예수께서는 그의 메시지의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포도나무와 그 열매의 비유를 선택하셨다. 의심할 것 없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 지역에서 일반적인 거칠고 비옥한 포도원의 이미지가 번뜩 떠올랐을 것이다.

본문해석

포도원 농부, 포도나무, 그리고 열매 (15:1-8)

15:1-2.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Egww eijmi(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형식으로 대답하셨는데 이러한 용법은 요한이 여덟 번 말한 것의 7번째 것이다.

- *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요6:35, 48)
- * 나는 세상의 빛이니(요8:12)
- * 내가 문이니(요10:9)
- * 나는 선한 목자라(요10:11)
-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 *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
- * 내가 참 포도나무요(요15:1)
- * 나는 왕이다(요18:37)

예수께서 비유에 사용하신 나무는 무화과(막11:13, 눅6:44)와 포도나무(마7:16, 마26:29)인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나무로 인식되어 왔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은 황폐와 곤핍을 상징했다(렘8:13, 사7:23, 사24:7, 호12:12).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 gewrgov(게올고스) "경작자"로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나 일만 하는 사람의 농부로서가 아닌 주인으로서 과실을 맺게도 하시며 맺지 않을 때는 제하실 수도 있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말한다.

2절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과실" karpō;n(카르폰)은 요한복음에 10번 나오는데(요4:36, 요12:24) 본 장에서만 8번 나온다(2절:3번, 4절:2번, 5절, 8절, 16절). 그만큼 포도나무의 역할이 오직 열매를 맺는데 있음을 말한다. 포도나무는 열매 이외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이다. 목재나 약재로서 사용할 수도 없다.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이다.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3절 13:10에서 사용된 kaqarov"(카다로스) "깨끗한, 정결한"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aujto ... kaqavrei(아우토 카다로이)로 사용되어 지시하는 aujto(아우토)가 있어 나무나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있음을 말한다. 열매가 없거나 다른 가지에도 피해를 입힌다면 그 가지도 찍어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제거함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되는 것이다. 마25:29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다.

15:3-5. 3절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제자들은 가룟유다를 제외하고는 깨끗하여 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해 진 것이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 mevno(메노)는 복음서에서 40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27번 나오고 본 장에서만 11번 기록된 단어로 요한의 핵심적인 신학사상을 반영한다. 또한 이 말씀은 바울신학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롬3:24, 롬6:23, 갈3:28)라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거한다'는 의미는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요(요6:54, 56),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는 속한자의 의미며(요8:31), 사랑과 복종으로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한다(요15:9-10).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 같이(요17:21-22) 그리스도와 제자(우리)들이 하나인 일체성을 말하며 결코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관계를 말한다.

15:6.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잘라낸 가지는 말라 결국은 생명을 잃게되고 열매맺는 것 위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포도나무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계3:1의 사데교회의 경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자"라는 경고를 생각나게 한다.

15:7-8. 7절 내 안에 거하고 ...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이 말씀에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예수 안에만 거한다면 이미 다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올바른 간구는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일2:16) 오직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롬12:2).

8절 과실을 많이 맺으면 -fevrhte(페레테) "열매맺다, 움직이다"는 현재, 능동법, 가정형으로 genhvsesqe(게네스데) "되다, 계속하다"와 결합되어 사용됨으로 과실을 계속해서 맺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예전에는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은 못 맺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계속해서 잘

맺고있는 나무를 말한다.

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15:9-17)

15:9-12.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명령으로만이 아닌 이미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사랑 안에 계속하여 있으라'는 당부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신다. 마19:17에서도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신다.

15:13-15.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착각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마15:3, 막7:7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했다.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며 이 친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15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 예수는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신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마11:19, 눅7:34)라고 놀려 부른 적도 있지만 사실로 친구이신 것이다. 눅12:4에서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불러주셨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 친구인 관계로 비밀스러운 것이 없었다.

15:16-17.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말한다(마28:19, 행1:8).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열매 맺는 것은 은사의 축복이며(롬1:11, 고전12장) 거듭난 생명의 영생하는 축복이다(벧전1:3).

17절 요한복음에 흐르는 주제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하셨다. 새 계명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요13:34),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신 것(요14:15)도 모두가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다(요15:12).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습공과 도입부에 나오는 한 소년과 그의 할아버지의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참조하라. 당신 자신의 포도원 경험을 포함해서 그 이야기를 검토하라.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학습 인도"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라, "오늘의 수업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에게 관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지를 치고 모양을 다듬는다고 가르치셨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고,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장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학습인도

2. 칠판이나 차트 위에 다음 줄거리를 전시하라: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요 15:1-17

- (1)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요 15:1-2)
- (2)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듯이 내 안에 거하라 (15:3-11)
- (3)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5:11-17)

3. 요 15:1-2절을 읽어라. 포도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익숙한 것이었는지 설명하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몇 가지 특징을 강조해서 살피고, 제자들이 자라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방법과 비교하라. 학습공과에 나오는 설명과 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 주해" 부분을 참조하라. 질문하라, "이 본문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밝혀주는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4. 요 15:3-11절을 읽거나, 혹은 반원 중 한 사람이 그렇게 하게 하라. "거하다"는 단어의 빈도수를 주목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성장의 근원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반원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열거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많은 길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반원들에 적합한 방법을 찾도록 격려하라.

5. 요 15:12-17절을 당신이 읽거나 자원자가 읽게하라. 이 구절에 관련되어 학습공과에 나오는 내용과 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부분을 활용해서 제자로서 열매를 맺는 의미에 대해 언급하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은 종종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 즐겁지 않은 과정을 지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지적하라. 당신은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참된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에 있음을 반드시 언급하라. 당신의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시된 사랑을 나타내는 길을 반원들과 함께 나누라.

적용 격려

6. 학습공과에 나오는 질문들을 참조하라. 반원들이 대답들을 토론하도록 하라.

7. 학습공과의 "적용 및 실천"에 있는 질문들과 코멘트로 반원들이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묵상하도록 인도하라.

<p>[제 5 과]</p>	<p>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 당신도 포함해서</p>
<p>핵심본문 요 17</p> <p>배경 요 17</p>	<p>학습주제 예수께서는 그를 위해 사역하는 제자들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서로 하나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도록 기도했다.</p> <p>탐구질문 예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일에 믿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면 왜 우리는 최소한 서로 잘 지내지 못할까?</p> <p>학습목표 예수님의 기도의 주된 요점들을 파악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보다 잘 지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파악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겨우 몇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대하게 될 즈음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무리한다. 기능과 형태에 있어서 이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닮았다 (신명기 33장). 지도자들이 그들을 좇았던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의 마지막 말로 지상의 여행을 마무리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은 기도의 문맥 속에서 나타난다. 독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이 친밀한 대화를 어깨 너머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는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의 어느 다른 부분과도 필적할만한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을 제공한다. 때로 사랑을 받는 장으로 언급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 속 깊은 열정을 배우게 된다.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17:1-6)

17:1. 이 말씀을 하시고 - 13-16장의 예수님의 고별설교를 말하고 가깝게는 요16:33의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선언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눈을 감고 땅으로 얼굴을 숙인 것과 반대되는 눈을 뜨신 상태에서 하늘을 주시하시면서 기도하셨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마14:19, 막6:41, 눅9:16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의 기도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요11:41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 본 장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20번 나타난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아버지"가 기록된 장이다. 그만큼 예수님께서서는 pathvr(파르테)는 아람어로 히브리어에서 온 ba:'(아바)을 부르심으로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사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다(마6:9).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 고난 속에서 능히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과 희생을 받아주실 것을 의탁하신 기도이다. 이러한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알려지는 것이다(롬11:36, 롬16:27, 고전10:31, 엡1:6, 12, 14).

17:2-3.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요6:39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14:1)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롬8:28)들이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요 이 일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영생"을 보장하신 내용은 눅18:29-30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셨다.

3절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언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마1:18, 20, 23)하시고 예정대로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엡3:11).

17:4-6.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여"(빌2:8)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것은(1절)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전제한 것이다. 아버지는 '보내신 자'(요4:34, 요5:36), '일을 맡겨 주신 자'(요3:35)로 나타난다. 이런 아버지와 영화로운 관계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것이다.

6절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는 구약의 율법들을 제자들이 잘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기(요14:15, 21, 요15:10) 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이 말씀을 지킨 정황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것은(요6:30) 곧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그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17:7-19)

17:7-10. 7절 지금 저희는 ...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 "지금" nu'n(넌)은 "현재"를 나타내는 기본 불변사로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연재 드디어 알게되었다는 것이다. 13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온 아버지와 예수님의 일체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 알게되었다.

8-9절 내게 주신 말씀들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요16장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온 것인 줄을 알았고 또 믿었다.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라고 하심은 세상을 구하시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환난을 생각하며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간구하고 계심을 말한다.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요3:16) 세상도 알고 믿게될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21, 23절).

10절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아들이 받았지만 그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에 예수를 통한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이다.

17:11-19.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 예수께서는 떠나실 것이며 세상에는 제자들만 존재하게 된다. 즉 아직까지 보내실 보혜사 성령도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이지만 제자들은 홀로 남아있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주권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하나가 되어 보호받을 것을 간구 하신 것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 11절에 이어서 '아버지께 간다'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하셨다. 이 말씀 자체가 제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십자가의 형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아버지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 aJgiavzw(하기아조)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의 뜻으로 이 용어는 단순히 "깨끗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진리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어 살도록 해달라는 부탁이다. "거룩"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만 있는 성스러움을 말할

때 사용된다(창2:3, 출3:5).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다(출19:6).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거룩한 것'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레2:3, 10, 레6:17).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 본문에 두 번 나오는 ajpostevllw(아포스텔로) "보내다, 파견하다"는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는 사명의 대위임(the Great Commission)이다(마28:18-20). 이것은 11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요17:20).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명의 계통인 것이다.

모든 신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17:20-26)

17:20-23. 20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는 제자들(가롯유다는 제외)만 위함이 아닌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lovgo":로고스) 을 통해서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21절 다 하나가 되어 -예수그리스도가 16장 고별설교에서부터 본 장 기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반복하시며 강조하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먼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설명하심으로 결국은 그들은 믿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고전12:13)에 속할 것을 간구 하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하기 위해서다. 오늘날의 모든 교단이 하나로 통합되어 한 기구 안에서 믿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요10:38, 요17:11, 23) 우리도 하나되어야 한다. 주 예수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나누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관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15장의 비유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한다.

17:24-26. 24절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 이것은 천국을 말씀하신 것으로 구원을 위한 기도이신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23:42)

26절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은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 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신 것이다. 요한은 그 기도의 결론을 아버지의 사랑(ajgavph:아가페)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고자하신 사랑으로 기도를 마치신다. 요13:1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요13:23)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사랑"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요3:16, 35, 요5:20, 요8:42, 요10:17, 요13:1, 34, 35, 요14:21, 23, 요14:31, 요15:9, 12, 13, 17, 19, 요16:27, 요17:23, 24, 26, 요21:15, 16, 19).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당신으로하여금 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도록 요청했던 인생의 어려운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반원들을 맞이하라.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학습 인도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라, "오늘의 수업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가 하신 기도에 관한 것이다. 배신을 받는 순간에서조차도 그는 기도하고 계셨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기도의 형태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학습 인도

2. 칠판이나 차트 위에 학습공과에 나오는 다음 줄거리를 전시하라.

- (1)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다 (요 17:1-5)
- (2)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 (요 17:6-19)
- (3)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다 (요 17:20-26)

3. 오늘 본문이 종종 "고별 설교"로 불리는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라. 예수께서는 그가 떠나가신 후에 있을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셨다. 이 기도가 이 교훈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통찰력을 주는지 주목하라. 요 17:1-5절을 읽거나, 자원자가 읽게하라. 그리고 나서 질문하라, "이 본문이 예수님의 삶의 초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밝혀주는가? 질문하라, "예수님의 기도는 그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묘사해주는가?"

4. 요 17:6-9절을 읽어라.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음을 지적하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반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 (보호, 17:11; 하나 됨 17:11; 진리로 거룩해짐, 17:17). 17:6-9절에 관한 학습 공과에 나오는 정보와 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 주해" 내용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 것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항상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에 대해 말하라.

5. 칠판에 코이노니아라고 칠판이나 차트에 기록하라. 학습공과의 '참고'에 나오는 코이노니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라. 반원들의 대답을 칠판에 써라, 그리고 요한복음 17:20-26절을 읽어라. 다음과 같이 진술하라: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한 교회 가족으로서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셨다. 23절을 강조해서 읽어라,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나서 질문하라, "교회 안에 건강한 교제에 대한 비밀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반원들이 예수님에 대한 계명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됨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살아있는 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시임을 알도록 인도하라.

적용 격려

6. 참여자들이 학습 공과에 나오는 질문을 참조하도록 하라. 시간이 주어지는 한,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질문을 사용하라.

7.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손을 올리도록 요청하는 것임을 진술하라,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손들을 섬기고, 치료하고, 용서하는 일에 뻗치기 위한 격려이다. 반원들이 하나 됨을 위해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응답의 부분일 수 있는 길들을 파악하도록 하라.

<p>[제 6 과]</p>	<p>예수님에 대한 판결</p>
<p>핵심본문 요한복음 18:15-27; 18:33-19:16</p> <p>배경 요한복음 18:1-19:16a</p>	<p>학습주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각 사람에게 그 분에 대하여 선택하도록 도전을 준다.</p> <p>탐구질문 당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에 대한 판결에 나타나는 각각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분별하도록 하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검증하도록 인도하는데 있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18장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전환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가르침과 사랑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18장에서 끝나게 되고, 열정(고난)적인 서술이 시작되려고 한다. 로맨스에서 열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복음에서 말하는 열정적인 서술은 고난의 이야기를 의미한다. 앞으로 이어질 복음에서 예수님의 체포, 판결,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고난을 자세하게 말해주게 된다.

놀랍게도 복음에 나타난 이러한 고난은 독자의 주의 깊은 관심을 끌지 않는다. 복음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애매하지만 예언적으로 선포하셨다(요 3:14; 8:28; 12:32-33). 앞으로 닥쳐올 어두움의 시간이 고통과 상실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언제나 주관자로서, 그리고 왕의 행렬로서 십자가로 가는 길과 왕위에 오르시는 시기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분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가장 어두운 통로에서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빛이었다.

다른 공관 복음서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다른 등장인물, 즉 빌라도(18:28-38)와 제사장들(18:19-24) 사이에 있었던 광범위한 대화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이런 대화들은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경험하는 다양한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요한복음은 모든 제자의 대표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라는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대표로서 베드로(18:15-18과 25-27)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문 해석

만남과 고백 (18:15-27)

18:15-18.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배신(18:3-5)과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라버린 충돌이 있는 후에, 예수님은 안나스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심문을 받기 위해 이송되었다(18:12-13).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체포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묘사되어 있다. 독자로서 우리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용감했다고 느낀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는 열정적이었지만 폭력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충성심을 잘못 보여주었다.

다른 한 명의 제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한은 이 제자가 대제사장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18:15, 16). 이 제자는 13장-21장에서 언급된 사랑받는 제자일 것이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제자를 사도 요한과 연결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신비한 인물에게 너무 빨리 이름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베드로와 자주 대조되는 이 제자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어떤 사람을 나타낸다. 이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였는지 간에, 이 제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베드로가 불가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 동안, 문을 지키는 여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중 하나가 아니냐?”(18:17). 이 질문은 다른 공관복음에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과는 아주 다르다. 다른 공관복음에서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막 14:67; 마 26:69; 눅 22:56). 요한에게 그 질문은 베드로가 제자였다는 것이었다. 고대 사회에서 질문을 정보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질문은 도전이었다. 이 질문은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느냐고 도전하는 것이었다. 요한니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제자도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표시 가운데 하나였다. 제자임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베드로의 짧지만 확실한 대답은 “나는 아니라” 였다. “나는” 이라는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다. 예수님은 병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히던 때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 고 대답하셨다(요 18:5). 대조적으로 베드로의 부정은 나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짓대 없는 증언이었다.

18:19-24. 베드로의 부정이 입에서 마르기도 전에, 요한복음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 간다: 대제사장 앞에 선 예수님. 대제사장의 불타오르는 듯한 질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였다(18:19). 예수님의 대답은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였으니, 궁금하다면 누구에게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에 대한 폭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고 폭력에 맞섰다(18:23). 질문에 대답을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들 가운데 안나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버렸다. 19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질문을 받았다는 것에 혼돈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되고 처형되었던(11:49-51)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이었다(AD 18-37년). 안나스는 그 이전의 대제사장이었다(AD 6-15년).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대제사장이라는 명예 칭호를 얻고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 더 이상 백악관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전임 대제사장에게 공식적인 권위는 없지만 호칭은 남아 있었을 것이다.

18:25-27. 초점은 다시 베드로에게로 옮겨진다. 요한은 예수님이 용기 있게 대답하는 장면과 베드로가 부정하는 두 장면을 끼워 넣었다. 어떠한 해석자라도 그 대답들 사이의 분명한 차이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18:25)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이 바로 전에 했던 제자도에 대한 부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질문자가 문을 지키는 여종이 아니라 종과 아랫사람(18:18)을 대표하는 불특정의 “그들” 이었다. 마지막으로 공개롭게도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종의 친척과 마주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그곳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러자 닭이 울었다. 이 마지막 부정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하신 따라올 수 없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13:36-38).

심문과 고문 (18:33-19:11)

18:33-38a.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의 관청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질문과 대답들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다. 관청 안에서의 일은 관청 밖에서 일어난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장면과 섞여 있다. 관청 밖에서 그리고 관청 안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일어나는 장면들은 독자로 하여금 극적인 효과를 느끼게 한다.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첫 질문은 예수님이 유대(유대인)의 왕인가 하는 것이었다. 유대인이

유대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수의 모임이 현대적인 인종이라는 수준보다 훨씬 더 지리적인 위치를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은밀한 어감의 질문에 상관없이 두 개의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유대 지방에서 로마 제국의 관심과 권위를 대표하는 완벽한 집정관으로서(AD 26-36년) 빌라도는 깊은 관심을 드러내는 질문을 했을 것이다. 왕을 사칭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정세를 불안하게 할 수 있었다. 유대인 상류층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관심은 자신들의 이익이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앞에 서있는 갈릴리 출신의 농부를 생각하면서, 조롱과 익살스러운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18:34) 빌라도를 부주의하게 만들고 또 도전을 주었다. 이어지는 질문과 되돌아온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현실이 확립되었다. 이 부분에서의 핵심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이다(18:36).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가 단지 하늘나라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력과 개발이 로마제국의 표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18:38b-40.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첫 번째 심문 이후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발표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이며 유월절에 보여주는 관용의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방면하도록 도전하였다. 신약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관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이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강도” 라는 말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양 우리에게 들어가는 선한 목자 이야기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였다(10:1,8).

19:1-3.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것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기 위한 시도였다. 한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한 충성이 없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장면은 또한 로마의 폭력적인 수단을 보여주고 있다. 가시 채찍을 사용하여 피고문자의 등에 채찍질을 가했다. 자기가 공개적으로 무죄라고 선언했던 사람을 채찍질하게 한 것은 빌라도의 나약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군중을 달래려고 예수님을 고문한 것이라면 빌라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19:4-8.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두 번째로 선언했지만,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은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선언했다(19:6). 이 마지막 선언은 종교지도자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를 드러나게 하였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19:7). 빌라도는 많은 신을 믿고, 또 다른 믿음과 전통을 가진 외국 문화 속에서 살아온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떨었다(19:8). 빌라도는 왕이라고 사칭하는 육신을 조종할 수는 있었지만, 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무기력하게 하였다.

19:9-11. 빌라도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심문하면서, 단지 질문만 하였지 어떠한 판결도 하지 않았다. 핵심 질문은 “너는 어디로부터냐?” 였다(19:9). 출생지에 대한 이 간단한 질문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다, 가야바, 혹은 유대인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요한은 좀 더 깊은 상징적인 수준으로 기록하였다. “넘겨준 자”라는 단수의 사용은 독자들이 하여금 이야기 속으로 끌려들어가게 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에게서 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과 원칙에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고백과 처형 (19:12-16)

19:12-13.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칭찬은 “가이사의 총신”이었다(19:12). 이 표현은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 가이사는 위대한 보호자이고 빌라도의 자리는 가이사의 총신이라는 만족에 있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자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인맥이 없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난한 농부 편에 설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다. 그의 결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14-16a. 이 장면이 마지막 절정을 이루고 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상기시켜주고 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희생양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양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1:29). 이 시점에서 모든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 흥분한 유대인들, 그리고 상처와 모욕을 받은 잠잠한 모습의 예수님.

예수님을 심문했던 빌라도는 이제는 대제사장들을 심문하여 그들의 왕을 처형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19:15). 빌라도의 질문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나타내는 담대한 선언이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19:15).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하여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시며, 충성은 하나님에게만 속해야 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교수 계획 - 다양한 학습 활동

삶과의 연결

1. 학생들에게 신실한 제자들의 소개서를 작성하도록 위임받았다고 말한다. 칠판이나 차트를 사용하여 신실한 제자들의 특징을 논의하도록 인도한다. 과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질문을 한다: 신실한 제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가? 또는 신실한 제자의 태도와 행동은 무엇인가?
2. 당신이 행동하기에 편하도록 대필해 줄 도움을 지명한다. 당신이 칠판을 사용한다면 칠판의 절반만 사용하라. 학습 중간에 나머지 절반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차트를 사용한다면 두 번째 논의를 위해 다른 종이를 사용하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논의를 위해 학생들에게 다음의 지침을 제공하라.
 - 판결 보류: 비방하거나 혹은 의견 교환을 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
 - 대답을 표제로 답한다(대답은 다섯 단어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3. 논의가 끝난 후에 간략하게 검토하고, 중요한 특징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학습인도

4. 당신의 학습을 위하여 관찰 차트를 여러장 복사한다. (차트 복사본은 www.baptistwaypress.rog 의 이번 학습에 대한 “교사학습자료” 에서 구할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차트 복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을 네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을 여섯 명 혹은 그 이하의 인원로 구성한다. 각 그룹에 차트에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씩 배정한다. (학습 참가자가 24명 이상이면 인물을 중복해서 배정한다.) 관찰 차트를 완성하도록 다음의 지침을 제공한다.

- 좌측에 나열된 각 인물의 정보를 읽는다.
 - 각 인물들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행동을 기록한다(그 인물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는지)
 - 예수님을 향한 각 인물의 태도와 행동들이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지 당신의 생각을 기록한다.
 - 이러한 태도와 행동들이 사람들의 본성 혹은 일반적인 삶의 본질에 대하여 무슨 교훈을 주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록한다.
5. “전체 학생들이 발견한 것들을 보고 받는다. 다음의 질문들을 한다.
 - 신실한 제자에 대한 우리의 소개와는 달리 베드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신실한 제자에 대한 우리의 소개와는 달리 빌라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신실한 제자에 대한 우리의 소개와는 달리 종교지도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신실한 제자에 대한 우리의 소개와는 달리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이것은 사람들의 본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이것은 일반적으로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6. 칠판의 나머지 반쪽 혹은 다른 차트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예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주는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인도한다. 학생들에게 앞에서 제시했던 논의를 위한 지침을 기억하도록 해준다. 리스트가 작성된 후에, 작성된 상황과 환경들을 간략히 검토한다.

적용 격려

7. 참가자 모두에게 종이를 나누어주고, 위에는 “베드로에게서 온 편지” 라고 쓰게 하고, 바로 밑에 “초점”, 그리고 맨 아래에는 “당신의 베드로로부터” 라고 쓰게 한다.

[편지와 같이]

베드로에게서 온 편지

초점: _____

친애하는 _____,

당신의,

베드로

- 학생들이 베드로처럼 신실하지 못하게 반응하도록 압박을 줄 수 있는 환경 혹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또는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해보도록 한다(그들의 상황은 6번에서 나열된 것들 가운데 하나일 필요는 없다). 학생들에게 압박이 되는 상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 되도록 격려한다.
- 학생들이 표의 초점이라는 줄에 특정한 상황을 기록하도록 한다.
- 학생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연장자, 현명한 사람, 혹은 훨씬 더 신실한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떤 충고를 줄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 학생들에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의 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떻게 학생들이 예수님에게 신실할 수 있는지 충고나 혹은 도전을 준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에게 편지를 쓰도록 한다.

- 학생들에게 “친애하는” 이라는 줄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편지를 마치도록 한다.

8. 하나님께 각 학생들이 베드로의 충고를 따라가도록 힘, 지혜,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마친다.

관찰 차트

인물 / 성경	태도와 행동	특징	교훈
베드로 (요 18:10-18, 25-27)			
빌라도 (요 18:33-19:16a)			
종교지도자들 (요 18:28-31; 19:4-8)			
사람들 (요 18:40; 19:15)			

요한복음 18:1-19:16a

핵심 본문에 있는 다음 인물들의 정보를 읽는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관찰한다(각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했는가). 예수님을 향한 각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은 당신에게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러한 태도와 행동들은 사람의 본성과 일반적으로 삶의 본질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베드로에게서 온 편지

초점: _____

<p>[제 7 과]</p>	<p>생명을 주기 위한 죽으심</p>
<p>핵심본문 요한복음 19:16b-30, 38-42</p> <p>배경 요한복음 19:16b-42</p>	<p>학습주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은 그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p> <p>탐구질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들을 추적하고, 그 의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있다.</p>

성경주해

배경 이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을 독특하게 그리고 있다. 다른 공관복음들과 비교해볼 때, 이처럼 다른 그림은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의 목적에 깊이 반응하도록 한다. 작가가 상징에 의존함으로써 인해 깊이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요한이 심사숙고하여 신학적으로 복음을 씀으로써 독자들은 가시적이고 역사적인 표면에서 영적인 진실의 계시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일찍이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요 7:24).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 빠진 것은 다른 공관복음에서 발견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 마가의 예수님은 청취자와 독자에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의 순교는 강력한 권세의 불의로 인해 파괴되었다. 비록 요한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서 묘사되기는 했지만 고통은 그 다음의 문제다. 예수님의 왕권과 영화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정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요한은 절망의 울부짖음을 생략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되심의 거의 모든 요소들은 예수님의 왕권과 영화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들은 예수님이 죽음마저도 주장하시고 화려한 장사를 위해 준비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셨고, 세상의 심판자와 구원자로 높임을 받으셨다. 요한에게 있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누구라도 왕의 즉위를 바라보는 증인이 될 것이다.

본문 해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19:16b-30)

19:16b-18.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19:17) 묘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처형을 당했다고만 언급하고 있다(19:18). 요한의 초점은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에게만 맞추어져 있고, 모든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다른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배경이 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간단명료한 초점은 예수님이 들려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세 차례(3:14; 8:28; 12:32)에 걸쳐서 자신의 사명이 들려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모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들려야한다는 한 가지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는 상징적으로 왕좌에 오르심과 영화롭게 되신다는 의미가 있다.

단순히 “그들” 이라고 언급된 불특정 다수는 예수님을 데려다가(19:23) 십자가에 못 박았다(19:18). 이 불특정 다수는 나중에 로마의 군인으로 밝혀졌다(19:23). 로마는 로마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처벌로 십자가 처형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소름끼치게 하였다. 이 방법은 대중에게 충격을 주어 로마의 권력에 복종하고 두렵게 하도록 하였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볼 때, 십자가 처형은 극도의 고통을 가함으로써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었다.

19:19-22. 모든 복음은 십자가의 명패에 예수님을 이름, 지역(나사렛), 그리고 직업(유대인의 왕)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대 사람들(Judeans)이 “유대인”(Jews)보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이유는 현대의 인종 대신에 다수의 사람들이 지역적인 위치를 표현하는데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른 복음들과 비교해서 독특한 것이고, 독자들이 하여금 나다나엘의 질문을 기억나게 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1:46). 1장에 있는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고, 그 대답은 여기 십자가 사건에서 감동적으로 재확인되었다.

이 선언은 세 개의 다른 언어로 묘사됨으로써 포괄적인 것이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 예수님이 연관된 범죄를 묘사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 명패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진실하게 드러내준다. 공교롭게도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의 권력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 세 개의 언어는 또한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서 표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12:32).

19:23-25a.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보던 네 명의 병사들에게 똑같이 나뉘었다. 희생당한 사람의 소유물을 차지하는 것은 로마 병사들의 전형적인 행동이었다. 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옷에 주의를 끌고 있는데, 그것은 속옷이었다. 다른 복음들은 이 속옷에 대한 언급을 생략했다. 요한은 이 옷의 독특함을 “통으로” 짠 것이고, 군인들이 “찢지 말고” 라는 행동들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었다. 하나됨과 단일성은 요한복음을 관통하여 지속되는 주제이고, 전형적으로 공동체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17:11, 21-23). 이 특별한 옷의 이미지는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비록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됨이 지속될 것이라는 요한니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작가가 언급한 옷을 나누고 속옷을 위하여 제비를 뺐는 것들은 시편 22:18편의 예언적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요 19:24). 성경을 참조하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처형을 예언적 전통에 근거를 두는 방식이다.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경적 암시는, 예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갑자기 일어난 생각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한 부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25b-27.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이 친밀한 대화의 장면은 공관복음들 가운데서 유일하다. 십자가에 있었던 여자들의 이름과 숫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전형적으로 네 명의 여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여자는 특별히 이름이 나오고 있다: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두 여자의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자매인 예수님의 이모. 공관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을 몰랐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만 나온다.

이 구절의 핵심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족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19:27). 이 장면이 독특한 것은 어머니의 안녕에 대한 가족의 책무가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7:3).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깊은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 요한니 공동체에서 혈연을 기초로 한 가족에 대한 충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서로간의 관계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1:12)가 될 때, 새로운 가족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가족은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으로부터 탄생되는 것이다.

19:28-30.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있어서, 빌라도도, 군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건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요한은 28절에서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주권은 죽음의 순간에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고통과 번민 속에서 울부짖지 않으셨다. 그 분은 단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혼을 맡기셨다(19:30).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지 못했다;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생명을 맡긴 것이다.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19:28).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과 십자가 처형으로 고통 받고 있는 희생자의 현실을 나타낸다. 다른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요한이 영적인 진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원가를 마신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4:1-30), 육체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신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완전함이다. 예수님은 일찍이 베드로에게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셔야 할 잔이 있다고 하셨다(18:11). 십자가 처형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잔을 마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포도주를 실제로 마셨다고 나오며(19:29), 그로 인해 자신의 사명이 진실로 완성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매우 훌륭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 포도주를 마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들은 이 두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우슬초에 묶인 해면에 적셔진 포도주였다. 이 “우슬초”라는 단어는 구약을 떠오르게 한다. 우슬초는 이집트에서 해방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태어난 것을 대속하기 위하여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되었다. 이제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죄로부터 새로운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장사함(19:38-42)

19:38-39. 앞의 본문(요 19:31-37)은 예수님의 죽음과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준다. 그러나 이번 본문에서는 관심이 새로운 인물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전 등장인물인 니고데모에게로 옮겨진다.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주받은 사람의 시신을 요청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비밀스러운 제자로서도 그려지고 있다. 이때쯤에는 니고데모도 비밀스러운 제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정도로 진보하였다(3:1, 7:50). 요한복음에 있어서 그 날의 제자도에 대한 도전은 비밀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추방과 순교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제자도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늦기는 했어도,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마도 예수님의 시체를 향한 동정심 있는 행동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동정심 깊은 행동은 예수님의 장사가 저주받은 범죄자에게 하였던 일반적인 장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몰약과 침향을 섞어 만든 향료는 100 파운드, 즉 오늘날의 75 파운드나 되었다. 급하게 준비된 장사이기는 했지만, 이것은 왕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19:40-42. 예수님을 매장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행해졌다. 그 분의 무덤은 어떤 불경한 시체에 의해 더럽혀진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주변 환경을 조명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다: 동산. 이 장면은 다른 공관복음의 작가들은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장면은 듣는 이에게 창세기의 최초 동산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옛 시대는 끝났다. 낙원은 죽음으로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다가오고 있다.

교시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이전 과의 “적용 격려”의 헌신약속과 관련한 칭찬 보고서를 요청하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또한 이 헌신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기도를 인도한다.
2.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아래의 “우리는 우리가 진 빛을 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용한다.

우리는 우리가 진 빛을 갠 수 없다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잘 생긴 젊은 남자의 이야기다. 그는 벌써 그녀의 부모님을 만났고, 부모님들로부터 무남독녀인 딸과 결혼하도록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청혼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값비싼 반지를 사서 예비 신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젊은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젊은 아가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면서 결혼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예라고 대답했다.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은 방금 본 장면에 흥분해서 그 젊은 한 쌍을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늦은 밤이 다가오면서 젊은 아가씨는 그의 얼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흥분하여 자신의 재킷, 셔츠, 그리고 바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괜찮은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의 지갑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에 가서 찾아보고는 지갑은 찾지 못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는 당황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식사비를 지급할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가 오늘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웨이터가 그들에게 청구서를 가져왔을 때, 젊은이는 긴장한 모습으로 목청을 가다듬고 웨이터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우리가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질문한다, 여러분가운데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있나요?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준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쩌면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용자금, 자동차 할부금, 혹은 학생 용자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채무가 있고 우리는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빚을 갚으셨나 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학습 인도

3. 한 사람에게 요한복음 19:16-25a를 읽게 한다.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학습개요의 요점을 언급한다(1.A.1과 2).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학생용 공과의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다”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에 있는 이 본문에 대한 “본문 해석”의 내용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4. 학생들이 학습 개요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학습 진행은 그 순서에 따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수님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진 것은 인간의 잔인함 때문이었음을 언급한다. 이 시기에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기억하게 한다. 요한복음 19:18절을 읽는다.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거나 혹은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임을 지적한다. 세 명을 지명하여 각자에게 다음의 본문을 읽게 한다: 요한복음 3:14; 8:28; 12:32. 다음의 질문들로 학생들이 논의하도록 인도한다: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혹은 들려 올림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5. 한 사람에게 요한복음 19:19:19-24절을 읽게 한다. 학생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되었음을 기억하게 한다(19:19).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에 있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여, 이 본문의 핵심을 요약해 준다. 추가의 정보를 위해 학생용 공과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다”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에 있는 “본문 해석”을 본다.

6. 한 사람에게 요한복음 19:25-27절을 읽게 한다. 이 본문에 대한 학습 개요를 언급하고 (1.A.3.), 학생용 공과에 있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는 내용을 기억하게 한다. 다음의 질문들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논의를 인도한다:

- 이 사람들의 과거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예수님과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무슨 격려를 받을 수 있는가?

7. 한 사람에게 요한복음 19:28-30절을 읽게 한다. 이 본문에 대한 학습개요를 언급한다(I.B.). 이 본문의 핵심을 요약한다. 정보를 더 얻기 위해 학생용 교과의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과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 에 있는 “본문 해석” 을 본다.

8. 학습개요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간다(II.A.). 요한복음 19:31-37절을 간략히 요약한다.

9. 한 사람에게 요한복음 19:38-42절을 읽게 한다. 이 본문에 대한 학습개요를 보게 한다 (II.B.). 학생들에게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무덤에 놓아 둔 것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추가 정보를 위해 학생용 교과의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제자들” 과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 에 있는 “본문 해석” 을 본다. 다음 질문들로 학생들의 논의를 인도한다:

- 예수님의 죽음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적용 격려

10. 학생들에게 학습개요 유인물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비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쓰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다음 일주일 동안 어떤 방식(편지, 이메일, 문자, 대화 등등)으로든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누어보도록 격려한다.

-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데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다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비그리스도인과 나누는데 용기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도록 격려한다.
-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라고 격려한다. 그들에게 이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9번의 “학습 계획 - 다양한 학습 활동” 을 보라.)
- 학생들에게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준다.

12. 9번의 “학습 계획 - 다양한 학습 활동” 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초청장을 만들어 본다.

13.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인도한다.

[제8과]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요한복음 20장1절-18절</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요한복음 20장1절-18절</p>	<p>학습주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신원과 사명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하도록 부르신다.</p> <p>탐구질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길 바라시는가?</p> <p>학습목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과의 만남을 설명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인가 설명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과는 좋은 소식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이 좋은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제자들의 행동과 반응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빈 무덤과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그들은 지금의 독자들과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평가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두드러진다(요한복음 20:1-2, 11-12). 그녀는 빈 무덤을 탐험하도록 기폭제 역할을 했다. 마리아에 대하여 알려진 내용은 적지만 그녀의 이름은 갈릴리 바닷가 북서쪽 구석에 위치한 막달라 마을 출신임을 암시하고 있다. 아마도 그녀는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어부산업과 연관되어 많은 활동들과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언급은 십자가의 앞에서(19:25) 었

는데 그녀가 얼마나 헌신되고 담대한 제자였는가를 보여준다. 그녀는 4 복음서에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유일한 이름이다.

막달라 마리아의 장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사랑하시는 제자 사이에 끼여 있다. 이런 두 명의 추종자들은 자주 함께 등장하며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을 드러내도록 한다. 두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마리아의 반응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그녀는 보냄을 받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좋은 소식들을 위해 갔을 때에 사도성을 증명하였다. 이런 마리아의 특별한 역할은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에 포함을 밝히고 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집회와는 다르게 요한의 공동체는 여인들을 예수 운동의 중요한 역할로 포함시켰다.

본문해석

빈 무덤(20:1-10)

20:1.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에 홀로 무덤으로 갔다. 여자로서 이런 위험들을 무릅쓰고 용기를 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깊은 충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요한은 어두움을 빛이 없는 상태로 이해했고 보통은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냈다.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은 마리아는 문자적으로나 은유적으로나 어두움 안에 있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진리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의 서두에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빛을 비추다”(1:9).

열려있는 무덤에 놀란 마리아를 현재의 구독자들에게는 이 발견 뒤에 있는 암시들을 이해한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무덤들은 밀바닥 돌을 깎아서 만든 석회암이었다. 이런 실내의 무덤 안에는 시신을 씻고, 향유를 붓고, 감싸두는 벽감들이 있다. 벽감은 벽에 좁은 통로를 깎아 만들었는데 이것은 시신의 머리카락을 벽감 안에 두고자 했음이다. 다른 벽감들은 벽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졌다. 이런 선반 안에 놓인 시신은 완전히 볼 수 있다. 첫 번째 장사 후에 유족들은 1년 후에 돌아와서 죽은 시신의 뼈들을 모아서 납골당에 넣어 두 번째 장사를 지낸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지에 대하여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쇼크는 이해가 된다. 무덤은 안전하게 닫혀져 있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20:2. 마리아의 긴급한 메시지는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전해졌는데 모르는 ‘그들이’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경쟁자인, 무덤의 도둑들 아니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데 요셉이 아마 그녀가 생각하는 ‘그들이’ 여러 가지의 옵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고백이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20:2). 마리아가 ‘우리’ 라고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도 포함시킨 것이다: 그들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어둠에 있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장소와 관계를 혼동하고 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 한다”(8:14). 베드로(13:36)와 도마(14:5)도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난감해 했다.

마리아의 진술은 예수님의 사명과 영광에 대하여 혼동의 고백의 절정을 이룬다.

20:3-6 마리아의 메시지는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무덤으로 경쟁적으로 달려가도록 움직였다. 함께 동행을 하기보다는 요한복음은 경쟁적인 경주로 묘사한다. 아직도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둘에게는 중요했다.

20:7. 그렇지만 무덤이 완전히 빈 것은 아니었다. 감았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에 덮었던 헝겊은 무엇인가 일어났다는 소리 없는 증거들이었다.

요한복음은 독자들로 나사로의 무덤의 장면을 생각나도록 목적을 가지고 자극하고 있다. (11:38-44). 나сар가 무덤에서 나올 때에 그를 묶고 있던 것이 벗겨져 그를 자유하게 했다. 묶여있던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다른 차원의 것임을 보여준다.

20:8. 베드로와는 다르게 사랑하는 제자는 단순하게 세마포를 보았고 본 것을 그대로 믿었다. 그는 무엇을 믿었는가? 만약에 이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모든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빈 무덤이 믿음을 주도록 자극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가능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는 영적인 통찰력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제자는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믿었다.

20:9. 이 구절은 20장 8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보강해 주고 있다. 해설자는 이 이야기에 관해 독자들로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제자가 혼동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구약의 말씀들이 여기에서 추측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인용이 되지 않았다. 저자는 말씀을(복음 이야기)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체험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함은 붙잡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회상을 하면 모든 복음의 조각들이 모여서 완전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20:10. 낙담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들로 갔다”. “집들”은 영어의 번역에서 삼입된 것이지 헬라어 성경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문자적으로는 제자들이 그들 스스로 가버린 것이다. 이것은 의기소침한 제자들이 붙잡히게 된 것이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거나 커뮤니티의 위안을 주는 대신 이 사실들을 숨겼다. 그들은 스스로 후퇴한 것이다. 제자들은 친구요, 선생이요, 리더였던 친구를 죽음으로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이다.

마리아: 부활의 첫 번째 사도(20:11-18)

20:11-13. 마리아가 무덤에 두 번째 온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리아는 제자들이 떠난 후에 뚜렷한 위로 안에 있었다. 그녀는 거기에 머물면서 경험한 악에 대하여 적당한 반응만 보였다: 흐느껴 울었다. 마리아의 상실은 천사들과 대면하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했다. “왜 울고 있느냐?”는 천사의 질문에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19:13)라고 대답한 것은 그녀가 아

직도 사건의 특별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20:14-15. 우리는 독자로서 마리아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예수님과 직접 얘기하고 있었다. 다시 깨달음은 올 것이지만 언제, 어떻게?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천사의 질문을 반복하시고 더하셨다. 단순한 질문은 심오한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19:15).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오해했는지는 미스터리이다. 하지만 이것은 마리아가 얼마나 깊은 혼동에 빠졌는가를 보여 준다: 그녀는 어둠 안에 있으며, 어둠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20:16a. 마리아는 어둠의 여정에서 한 마디의 말로 빛으로 들어왔다-그녀의 이름. 요한복음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10:3)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10:7-18).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고, 마리아가 깨달을 때에 비유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20:16b-18.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주 부르는 이름인, “라보니”(선생님)(1:38, 49; 3:2; 4:31; 6:25; 9:2; 11:8).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듯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선생님과 제자가 되어 미리 부활에 참여 하는 듯하다. 예수님의 마리아에 대한 의아한 명령인 “잡거나 매달리지 말라”는 것은 지상에서의 관계의 유형은 끝났음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리아에 대한 명령은 몇 칠 후에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이상하게 보인다(20:27).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우주의 요-요 같이 승천하고 강림하는 것을 반복함으로 그의 육신의 실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의 문장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 나를 붙잡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부활 후에 새로운 관계는 존재하고 있다.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마리아는 사도성의 부류 안에 들어야 마땅하다. 마리아의 보냄은 “나의[예수님] 형제들.”이었다. 이 언급이 지상에서 믿지 않았던 형제들(7:3-9) 이기 보다는 마리아의 소식을 전한 것은 슬픔에 빠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이었기 때문이다(19:18)

마리아의 메시지는 지진이 일어날 만한 압축된 문장이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19:18). 고대의 세계의 입으로 전해지는 문화에서는 증인들 자신들이 진실이 가장 좋은 증거자료였다. 마리아의 예수님을 보았다는 주장은 의기소침해 있던 제자들을 흔들여 놓고 놀라게 하기에 가장 강한 증거였다. 마리아는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4:1-30)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 하는 증인이 되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어떤 가정의 부활절의 전통들을 반원들이 나누게 하고 이러한 전통들이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로 시작한다. 학습 가이드 를 사용하여 예수님 당시의 장례의 예식과 전통에 관한 정보를 나누도록 한다.

학습 인도

2. 요한복음 20:1-2절을 한 사람이 읽도록 한다. 마리아가 처음 반응을 한 사람으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질문하라. 마리아의 현장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추측했다는 것을 지적하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추측이 있다는 것을 말하라(부활하지 않았다; 주님이 아닌 좋은 선생님).

3. 요한복음 20:3-15를 읽도록 도움을 얻어라. 반원의 3분의 1은 현장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듣도록 하고, 3분의 1은 다른 제자의 반응을 듣도록 하고, 다른 3분의 1은 마리아의 반응을 듣도록 한다. 각 그룹으로부터 의견들을 모우고 각기 세 사람의 반응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도록 한다. 그들의 개인의 성격들과 예수님과 경험들의 어떻게 그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질문한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난 특별함을 토론하도록 한다. 요한복음 20:30-31을 읽어주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4. 제목을 쓰라 “부활의 증거,” 반원들로 요한복음 20:1-15 을 관찰하고 이 구절들 속에서 부활의 증거들을 확인하도록 하라(예를 들어 빈 무덤, 무덤의 옷의 상태,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 접어 있던 옷들의 다른 세마포로부터 분리된 머리에 있던 형겔의 특별함이 무엇인가? 질문한다(“옷들을 보라” 밑에 있는 학습 가이드 안에 있는 정보들을 참조하라). 요한복음 11:44에 나와있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사로의 무덤 옷들과 예수님의 무덤 옷들을 비교해 보라.

5. 요한복음 20:16-17절을 읽도록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보았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들을 생각하도록 인도한다. 마리아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NIV). 자연적인 해석은 만지지 말라, 잡지 말라, 매달리지 말라, 이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진 것과(20:27),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누가복음 24:39) 한 것을 지적하라. 왜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마리아가 만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나? 교사 가이드(20:27) 안에 있는 성경 강해와 학습 안내를 참조하라.

적용 격려

6. 요한복음 20:18절을 읽으라. “나는 주님을 보았다”를 칠판에 쓰라. 반원들이 예수님을 본 방법들을 나누도록 격려하라. 이러한 증거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지 토론하도록 하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마리아가 본 무덤을 보았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도둑을 맞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에 설득되었다. 무엇이 마리아를 변화시켰는지 질문하라(예수님과 개인의 개인적인 만남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도록 이끈 것이다).

7. 모든 반원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주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나눌 한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한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반원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도록 하며 성경공부를 마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예수님의 사역에 보냄을 받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요한복음 20장19절-23절</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요한복음 20장19절-23절</p>	<p>학습주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명령과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같이 섬기면서 살도록 허락하신다.</p> <p>탐구질문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당신을 보내시길 원하시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특별함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능력 주심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분별하도록 하라</p>

성경주해

배경이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 번 나타나심 중에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요한복음20:1-3,11-18)와 도마에게(20:26-28) 세 번째 나타나심 중간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에 개인들에게 나타나신 것과는 달리 다시 사신 예수님은 특별한 그룹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어떤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제자들이 공석이었는지 알 수는 없다.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권위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보냄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바울과 마리아와 같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행9:1-9, 눅1:26-38). 이러한 이야기들은 개인과 개인들에게 특별하고, 신성하고, 권위 있는 사명을 할애하고 있다. 보내심의 이야기들은 보통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을 사용 한다: 소개, 반목, 반응, 보냄, 반항, 다시 확신함, 그리고 마침이다. 요한의 보냄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요소들은 모두가 분별이 가능하다. 반항만이 유일하다. 필자는 다른 이야기인 도마의 불신의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이것을 보류한다(요한복음20:26-28),

섞여있는 보냄의 이야기 속에는 복음의 첫 부분에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 유대인들, 평화, 성령, 그리고 죄. 저자는 생각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전의 장면들을 참작하고 예수님의 복음들을 말한다. 이 보냄의 이야기는 독자들이 하여 요한복음을 넘어서 추진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독자들이 다시 사신 주님의 보냄심에 자신들의 역할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본문 해석

두려움과 평화(20:19-20)

20:19. 요한복음은 부활 후에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의 시간과 배경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이 사건은 밤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과 이해대신 어둠 안에 갇혀있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그들은 소망도 없고, 선택권도 없고, 계획도 없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사건이 바로 한 주의 시작인 주일에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과 깊이 연관이 있으며 주일이 바로 부활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일은 예수님의 만찬과 함께 축제하게 되었다.

요한복음은 왜 제자들이 닫혀진 문 뒤에 숨어있어야 했던 이유에 대하여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두려움, 특히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현대의 독자들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행동들 때문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는 빈 무덤까지 보았다. 이런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요한복음에서 두려움은 증거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불구화시켰다. 이 복음은 두려움에 사는 개인들을 어수선하게 한다: 니고데모(9장), 빌라도(19장), 그리고 마리아대 요셉(19장).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당황스럽고 놀라게 하셨다. 그분은 같으셨지만 완전히 틀리게 나타나셨다. 문들은 주님을 막을 수도 없었고, 무덤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부활은 예수님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했다. 예수님은 단지 일어나시고, 기지개를 펴고, 갈을 수가 없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새로운 시대가 존재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확신시키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평상의 인사였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서로에게 인사를 shalom(평화)으로 한다. 헬라어는 동사를 제외시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바라거나 소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평화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독특한 선물이었다(14:27,16:33).

20:20. 예수님의 그의 신분의 증명으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19:34). 주님의 발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24:39). 고통의 다른 면이 나타나는데 부활이 과거의 고통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변화한 것이다. 예수님의 상처들이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쇼크를 주거나 불신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기뻐하게 하신 것이다. 전에 예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고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요한복음 16:22)

보내심(20:21)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 제자들이 나가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막 6:7-13; 마 10:5-15; 눅9:1-6) 모습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이 없다. 단지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신뢰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나온다. 아마도 요한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야 진실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에 대하여 끌어당기고 있다.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중심으로 믿음의 커뮤니티를 만드셨고, 지금 제자들의 사명은 같은 것이었다. 이런 지속적인 모양의 권위가 제자들과 그들의 사역에 부여됐다.

이 구절이 선교의 어느 지정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지만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에 의해서 제자들이 보내진 곳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요한복음 17:18).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부정적인 곳으로 묘사되었다. 그래서 놀랄 것도 없이 세상은 제자들을 증오하고(15:18-20), 그들이 통곡할 때 기뻐한다(16:20).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3:16). 그리고 부활의 소망의 능력으로 세상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받으심(20:22)

예수님께서 바로 명령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생기를 부으셨다. 요한복음은 자주 구약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시작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장도 창세기의 페이지를 반복한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2:7). 요한의 커뮤니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에 새로운 창조가 된 것이다. 조직이나 어떤 교회들은 많이 다른 영들과 열정들로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생명을 교회의 몸으로 가져 오신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은 다양하다. 성령은 제자들을 소생시키고, 믿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세상을 심판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을 자주

파라크리트로 부른다. 영어번역은 그 단어를 변호자(상담자), 위로자, 외치는 자로 사용한다. 이런 다양한 단어들은 성령의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데 성령님은 믿는자들을 도와서 세상에서의 사명을 완성하게 하신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과 누가의 이야기에 나오는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에 대한 혼동이 생길 수가 있다(행2:1-12). 복음서를 읽는데 중요한 원리는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그들의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다는 것이다.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서를 섞어 놓은 것이 각 복음서에 있는 신학적인 통찰력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요한과 누가는 믿는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각자는 다른 방법으로 진리를 썼다. 누가는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썼기에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구체적인 일들을 연장하고 팽창하여 썼다. 요한복음의 오순절 사건은 총총하면서 절제력 있게 쓰여 졌다. 요한은 성령에 대하여 두 번째 책을 쓰지 않았다.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문자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서하심(20:33)

많은 사람은 마태복음 20:19-20에 나오는 대 사명을 잘 알고 있고, 복음적인 부르심이 제자화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명은 덜 강조되었고 아마도 사명을 방치하는 부류로 분류할 수도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은 죄를 용서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용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용서와 사랑은 같은 동전이지만 두면과도 같다.

아주 적은 수가 용서를 구하거나 찾는다: 이러한 개인들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죄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강조되는 것은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미루는 사람에게 된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커뮤니티 안에 있는 다른 믿는 자들 안에서 새로운 사람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용서를 보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커뮤니티나 전체에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다.

요한은 용서해야 할 죄들의 명단을 쓰지 않았고 그러한 불투명성이 좋다. 그것은 포용력을 알게 하는 동시에 많은 죄들에 대하여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모든 죄들은(복수) 용서받을 수 있다. 단 한 가지 죄만 커뮤니티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불신하는 죄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종이 포스터 중간에 ‘대사’ 라는 단어를 쓰게 하라. 반원들이 도착하면 ‘대사’를 표현하는 단어나 문구들을 적도록 지도 한다. 모든 사람이 도착한 후에 포스터에 있는 단어나 문구들을 토론하게 한다. 사전에 나오는 ‘대사’ 의 정의를 나누고 Study Guide 에 나오는 첫 문장들을 소개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적하라. 이 과를 배우면서 반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지 격려하라.

학습 인도

2. 반원들이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는가를 듣고 있을 때 누군가 요한복음 20:19를 읽게 하라. 읽고 난 후에 반응들을 초대하라.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면 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육신적인 학대를 당하는지 질문하라.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라. 방 안의 예수님의 임재가 어떻게 제자들이 평화를 경험했는지 질문하라.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평상시에 어려움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속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지 나누도록 하라. 요한복음 16:33 을 언급하라.

3. 요한복음 20:20-21을 읽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들을 보인 암시를 나누도록 하라. 주님의 상처가 그의 신분을 밝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치러야할 대가를 밝힌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들을 초대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요한복음 안에서 구절들을 찾아보라(요한복음 14:12, 17:18, 21, 23).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지 인도하라.

4. 요한복음 20:22-23를 읽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시고, 용서를 가르치셨는지 집중하도록 하라. Study Guide 와 Teaching Guide 안에 나와 있는 ‘성경 강해’를 이 구절들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라. 용서(20:23) 와 의미에 집중하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학대를 받았는지? 물어보라. 그들의 의견들을 칠판위에 쓰고 반대편에 ‘용서’라는 단어를 써라. 그리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학대한 사람들에게까지 용서의 범위를 넓어야 했는지 질문하라.

적용 격려

5. 반원들에게 지난 몇 주 동안 어디를 갔었는지 질문하라. 직장과 식당들과 쇼핑과 오락 장소들을

포함시킨다. 교회를 포함한 모든 장소가 선교지라는 것을 지적하라. 그들이 평상시에 자주 보는 사람을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반원들이 평상시에 자주 보는 사람들을 놓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마치도록 인도한다.

1. James L. Bailey and Lyle D. Vander Broak, *Literary Forms of the New Testament: Handbook*(Louisville:Westminster/John Knox, 1992),144

[제 10 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함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요한복음 20: 24-3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요한복음 11: 16; 14:5; 20:24-31</p>	<p>학습주제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에 회의적인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p> <p>탐구질문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살도록 예수님이 원가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가?</p> <p>학습목표 구주와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믿는데 회의적인 사람들을 격려하는 방법을 명확히 알아내는 것</p>

성경주해

배경이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후 예루살렘에 세 번 나타나신 것중 마지막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번 나타나심은 제자 도마와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마의 사역과 예수님과 관계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제자들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나올 뿐이다(마태복음 10:3; 마가복음 3:18; 누가복음 6:15).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관한 세 가지 짧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있다.

도마는 11장 16절에 쌍둥이중 하나라고 소개되었다. 그는 동료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에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간청했다. 도마는 기독교계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낙인찍힌 반면,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닌 현실적인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려고 음모를 꾸몄다면 만약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위험을 도마는 잘 알고 있었다. 체념한 상태 었든지 아니면 비꼬아서 한 말이었든지 간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11:16)고 말했다. 그 말이 나사로와 함께 죽자는 말인지 예수님과 함께 죽자는 뜻인지 간에 도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처할 위험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실용주의자 였다.

도마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14:3-4)고 말씀하신 때에 나온다.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증거가 필요했던 도마는 예수님께 말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14:5). 의심 때문이 아니라 도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알기를 원했다. 그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X라는 장소가 확실히 표시된 지도와 그곳에 가기위한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었다. 그의 이런 습관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본문해석

실용주의자 도마 (20:24-25)

20:24. 도마라는 인물은 본문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비춰지고 있다. 쌍둥이중 하나, 열 두 제자중 한명,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도마의 모습이다. 그가 쌍둥이 였다는 사실로 보아서 우리는 그의 쌍둥이 형제가 요한의 공동체에서도 알려진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마가 제자들중 중추적인 역할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중요한 제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지못한 도마는 (20:19-23)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다른 인물들처럼 어둠가운데 있었다. 본문은 이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도마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까하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20:25. 깨달음의 순간은 아마도 도마의 동료제자들에게서 왔을 것이다. 그들은 도마에게 그들이 “주님을 보았다” 는 것을 나누려고 노력했다. 막달라 마리아도 같은 소식을 모든 제자들에게 전했다(20:18). 헬라이어 동사는 그들이 도마에게 이 좋은 소식을 자랑했음을 짐작케함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그 소식에 흥분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마리아가 전한 소식은 제자들에게로 퍼져 나갔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돌짜발에 떨어진 씨앗과 같았다. 제자들은 도마의 불신을 너무 많이 비난할 수는 없었다. 그들도 또한 처음에는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믿지 않았었고 부활의 증거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육신을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의 열성적인 행동에 대한 도마의 반응은 두가지 였다. 보고 만지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기 원했다. 그보다 더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들을 만져보기 원했다. 예수님은 도마를 속이거나 기만하고 싶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마가 실용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도마에게 삶은 상상속에 등장하는 소원이 아닌 보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의 믿고자 하는 의지는 그의 의미와 가치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도마에 대한 요한의 부정적인 묘사는 그를 표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즉,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4:48) 사람들 중 하나로 보이게 한다.

보지않고 믿는 믿음(20:26-29)

20:26. 예수님의 도마에게 나타나심은 전에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셨던 것과 유사하다(20:19-23). 그 날은 일요일 이었고 방문은 또다시 잠겨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갑자기 그리고 깜짝 놀라게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의 인사를 하셨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실용주의자인 도마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인가? 도마는 또 어땠을까? 긴장한 제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을 보고 무엇을 했을까?

20:27. 예수님께서서는 도마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셨다. 첫 번째 도전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는 것이었다. 요한복음은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 보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도전은 도마의 마음속의 갈등에 제대로 꽃혔다. 영어 성경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은 그 도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불행하게도 이 번역본은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어 놓는다. 예수님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풀이하자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자가 되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도마앞에는 두갈래의 길이 있었다. 한 길은 외롭고 어둡고 회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다른 한 길은 변화의 기회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 빛과 생명의 자녀,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되는 길이였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과 공동체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20:28.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랍비,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왕, 메시아 그리고 구주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다. 도마가 “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고 고백했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직접 연결시켜서 말한 오직 한 사람이었다. 이 고백은 독자의 기억을 요한복음의 처음 부분으로 돌려 놓는다. 요한은 서두에서 말씀(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 셤다고(1:1) 말했다.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고백에서 의미있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나의” 라는 짧은 단어이다. 도마는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 자신을 집어넣었다.

20:29. 도마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것일수도 아니면 수사 의문문, 즉 반어법적인 의문문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서술이라면,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반어법적인 의문문이라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가 된다. 여기에 대한 답은 네, 그렇습니다 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예를들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 -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봄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확고히 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는 등식은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믿음의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선언하셨다.

복음의 목적(20:30-31)

20:31. 대부분의 작가들이 글의 주제나 목적을 서두에 놓는 반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본서의 주제를 후반부에 놓았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저자는 복음서의 서두에서부터 독자들이 지속적으로 본 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 같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 쓸 것이 아직도 더 많이 있음과 그가 그 중 일부만 기록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요한은 비록 예수님 생애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지라도 예수님의 신적인 사명과 그가 주시는 생명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20:31. New Standard Revised Version의 번역대로, 요한복음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전도이다.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은 이 복음을 듣거나 읽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어떤 번역은, 특별히 주석에 보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지속적으로 믿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준다.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도 믿음을 지킨 예수님과 초기 신자들의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를 계속 이어가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준다. 어쩌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위의 두 가지 다 일 수도 있다. 요한복음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때로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믿음을 성취하는 것인 반면, 믿음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 안에(예수/ 말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요한복음 1:4)는 생명에 관한 신학적인 주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36번에 걸쳐서 사용했다. 마가는 네 번을 사용했고 마태는 일곱 번 그리고 누가는 다섯 번을 사용했다.

현대와 마찬가지로 고대세계에서도 생명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쉽게 그리고 빨리 사라지는 것이었다. 야고보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14)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은 죽음을 벗어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예수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됨과 하나님의 영광 신앙의 공동체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생명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습용 공과의 도입부에 나오는 졸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요약한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할 지 찬반양론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한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학생처럼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도마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오늘 날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회의론자들과 관계를 갖는데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가?

2.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교구 계획- 다양한 학습활동”의 두 번째를 참고하라. 왜 예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는지를 물어본다.

학습 인도

3. 학생들에게 학습용 공과에 있는 요한복음 20:24-28절의 본문을 인쇄해서 나눠준다. 학생들중 3분의 1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밑줄을 긋게하고, 또다른 3분의 1일은 도마의 말과 행동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제자들의 말과 행동에 네모를 치게 한다. 각 팀의 결과를 들어본다. 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께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를 어떻게 대하셨으며 왜 그렇게 하셨는지 토론을 하도록 유도한다.

4.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꺼려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강요하거나 좁은 소견을 가진 사람들로 치부 될 수도 있다. 칠판에 다음과같이 쓴다. “나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특히 회의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토론해 보도록 한다.

5.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단언했었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자원하는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나누도록 한다.

적용 격려

6. 각자에게 아래의 문구가 적혀있고 각 문구아래에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여백이 있는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준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나의 삶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후의 나의 삶

각자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두세명의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거나 또는 서너개의 그룹을 지어서 서로 나누도록 한다.

7. 모든 신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요한복음 20:29-31을 읽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도마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물어본다.

8.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든다.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이미 믿는 사람의 삶에 있는 믿음의 효과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학생들에게 위의 문장에 동의하는지 않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본다.

9. 수업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삶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되심을 나타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돌아오는 주간동안 예수안에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방법을 적어도 하나 정도 찾아보라고 한다.

<p>[제 11 과]</p>	<p>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p>
<p>핵심본문 요한복음 21장 1-23절</p> <p>배경 요한복음 21장</p>	<p>학습주제 아침식사시간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재의 상황이 어떨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함을 보여준다.</p> <p>탐구질문 당신의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p> <p>학습목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잘 살펴보고 처음 믿는 경우든 또는 성숙한 신앙이든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기.</p>

성경주해

배경이해

요한복음 21장은 1장에서 20장과는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장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주석가들은 21장이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20:30-31절이 복음서에 맞는 결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은 뒤(요한복음 20:19-23) 예수님의 명을 따르는 대신 그들의 원래 직업인 어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21장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비록 다른 장들과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 장은 요한복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21장은 저자의 그건 그렇고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21장은 종종

일종의 후기로 분류되기도 한다. 후기는 새로운 인물이나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느슨한 결말을 완성하고 덮는 역할을 한다. 아주 잘 알려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상징과 주제들을 다루면서 본문은 전장들에 대한 질문들과 모호함을 해결해준다.

그 느슨한 결말 중 하나는 베드로와 관련이 있다. 앞의 장들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관해 (18:15-18; 25-27) 그리고 빈 무덤에서의 그의 혼란스런 심경(20:3-10)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마지막 장면들이 독자들이 베드로에 대해 기억하는 것의 전부인가? 요한복음은 아니라고 말한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회복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새로운 사명에 대한 특별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또한 본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1장에서 20장과는 달리 21장에서는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곧바로 무대 중앙에 올려놓는다. 이 두 인물들은 역사적 그리고 상징적으로 제자도와 사역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본문해석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응을 함(21:1-8)

21: 1-3 본문은 즉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숨기지 않는다.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인지에 대한 긴장감이 돈다. 앞 장에서처럼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언제나 독특한 계시를 만들어 냈다. 먼저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후 나타나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뤄진 반면 이번 장소는 갈릴리였다. 요한복음은 또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디베랴 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디베랴 바다(6:1에도 나오는) 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본문에는 일곱 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온다. 그 중 세 명은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이었다. 베드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21장이 그의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도마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했었다. 놀랍게도 세배대의 아들들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21장이 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에 비추어보면 이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두 제자들이 있었다. 만약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 아니라면, 이 두 사람중 한 사람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였을것이다.

한 가지 의문은 예수님의 위임 명령(20:19-23)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느냐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 수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할만한 것은 없다. 바로 이 점이 21장이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것과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1-20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들과 서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문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부르심 안에서 제자들의 사명완수를 강조하고 있다. 개인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잘못을 용서한다든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행할 수 있다(또는 해야만 한다).

21:4-6. “날이 새어 갈 때에”는 상징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빛과 어둠에 대해 상기시켜준다. 어둠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임재를 더 환히 드러나게 한다.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제자들 모르게 예수님은 그들이 고기잡이에 실패했을 때 바닷가에 나타나셨다. 텅 빈 그물과 실패한 고기잡이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근본적인 필요, 즉 음식을 생각하신 것이었다.

21:7-8. 본문에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시몬 베드로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면의 우월함과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안목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께로 헤엄쳐갔다. 비록 생각은 짧았지만 베드로는 행동으로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었다. 한 성경학자는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계시가 전해지는 묵상과 묵상을 함으로 이뤄지는 사역”이 바로 그것이다. 안목은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종교적인 이기심이다. 그리고 행동은 있는데 안목이 없다면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다.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범이 된다.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일을 할 때는 “옷을 벗었고” 예수님께 헤엄쳐 갈 때는 도리어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유대문화에서 벗은 몸은 수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또한 수영을 하는데 옷을 입었다는 것도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다. 추측하건대 베드로는 하체를 가리는 옷이나 작업할 때 편리한 천을 두르고 있다가 해변까지 헤엄치기 쉽게 하기위해 그것을 꼭 묶었거나 안쪽으로 밀어 넣었을 것이다. 신학적으로, 이 구절은 옷 입는 것에 대해 언급한 이후의 구절과 연관된 것일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21:18) 늙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행동이 그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예수님과 함께 아침식사를(21:9-14)

21:9-11. 요한은 본문을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먼저, 해변가에 피워진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숯불 이었다는 것, 그저 단순히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153마리의 물고기 였다는 것 등이다. 요한의 저술 방식을 알면 이런 세부적인 묘사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숯불이 맨 처음

언급된 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였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뒤뜰에 모닥불 주변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18:18). 냄새는 기억을 되살아나게하는 효과가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에 있었을 때 자극적인 숯불 냄새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실패와 연약함의 기억을 되살렸다.

153마리의 물고기에 대한 가설은 어거스틴 시대(A.D 354-430)까지 이어진다. 초기의 독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말하는 바를 잘 이해 했겠지만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비록 의문점은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21:12-14. 아침식사를 하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고픈 배를 진정시키기 위한 부르심 그 이상의 것이었다. 예수님의 행동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 주셨던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 6장에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 (6:11-12) 사용하셨다. 이 두 장면은 독자들에게 성찬식을 연상시킨다. 제자들을 식사에 부르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더 친밀한 교제로 초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 포용과 용서를 배운다.

위임 (21:15-19)

21:15-17. 일곱명의 제자들 모두가 아침식사에 참여했을 때, 다음의 나오는 구절들은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사명은 질문과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다. 첫 번째 질문만 다른 질문들과 다르다.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1:15)고 물으셨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모호 하면서도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충성심을 요구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속에 등장하는 “사랑”에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다. *phileis* 와 *gapas*가 그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단어가 서로 질이 다른 사랑, 즉 우정과 무조건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구분지어 말한다. 예수님의 질문은 처음에는 아가페로 시작해서 필리아 즉 우정으로 끝났다. 베드로는 매번 마다 필리아로 대답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이 단어들이 서로 바꾸어서 사용된 점을 미루어 이 두 단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요한이 강조하는 주안점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삼중의 사랑 고백 이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사랑을 세 번 고백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세 가지 질문 외에도 예수님은 세 가지를 명하셨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다.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은 목양을 하는 것이었다. 이 위임령은 예수님께서 사역초기에 말씀하셨

던 선한 목자(10:11-18) 이야기의 반향이었다. 양을 돌보고 먹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역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가끔씩 먹이고 보살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역은 사랑이 뒷받침 된 섬김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발전한다.

21:18-19 본문은 그 내용으로 볼 때 베드로의 사후에 쓰여졌음이 분명하다(21:19), 이 구절들은 베드로가 양떼의 목자로서 그 임무를 완수했음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일찍이 선한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다 (10:15). 이런 자기희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일이고 베드로는 똑같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의 사역을 마쳤다.

사랑하시는 제자의 운명(21:20-23)

21:20-21.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독자들에게 그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상기시켜준다. 모범적인 제자로서 그는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킨 사람으로 그려졌다. 앞의 구절들은 베드로를 목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이 복음서의 초기 독자들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역할에 대해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이 제자에대한 질문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다.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21:22-23.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써 신실함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하시는 제자의 삶과 죽음에 대해 오해를 불러왔다. 23절을 보면 본 복음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그 사랑하는 제자는 이미 죽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자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죽음 (또는 다가오는 죽음)은 요한의 공동체에 혼동과 두려움을 야기시켰다. 이 것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죽었을찌라도(또는 죽을 찌라도) 성령은 공동체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위한 말씀이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들의 이름과 직업을 나누라고 한다. 그들이 어떻게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지 말해보게 한다.

학습 인도

2. 누군가를 정해 21:14을 읽도록 한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신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가 왜 본문에 나오는대로 행동했는지 의견을 말해보게 한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로서의 베드로를 비교해 본다. 칠판에 “목자” 그리고 “목사” 두 개의 단어를 쓴다. 양을 돌보는 목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한다. 이 목록을 목사란 단어 아래 목사의 일이 목자와 비슷한 점을 적을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3. 학습용 공과에 있는 “양 떼에게 돌아가라”의 내용과 인도자용 지침서에 있는 “위임”의 내용을 참고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셨는지 말해준다. 베드로의 세 번의 사랑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준다. 이 과정이 어떻게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회복시켜 놓았는지를 물어본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용서를 보여주셨으며, 왜 베드로에게 이 경험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한다.

4. 요한복음 21장 18-23을 읽는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뗏가를 치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날로부터 베드로의 주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명은 모두 양 떼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맞게 될 것이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역할을 다른 제자의 역할과 비교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말해 준다. 각 제자는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적용 격려

5. 학습용 공과의 주안점을 참고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언제나 직업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준다. 종종 예수님은 우리가 일터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일터로 내보내신다.

6. 학생들이 다음의 문장을 완성하도록 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은 _____을 함으로 내 인생에 차이를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으셨고 예수님의 양떼를 잘 돌봐 달라고 하셨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본다. 기도로 모임을 마친다.